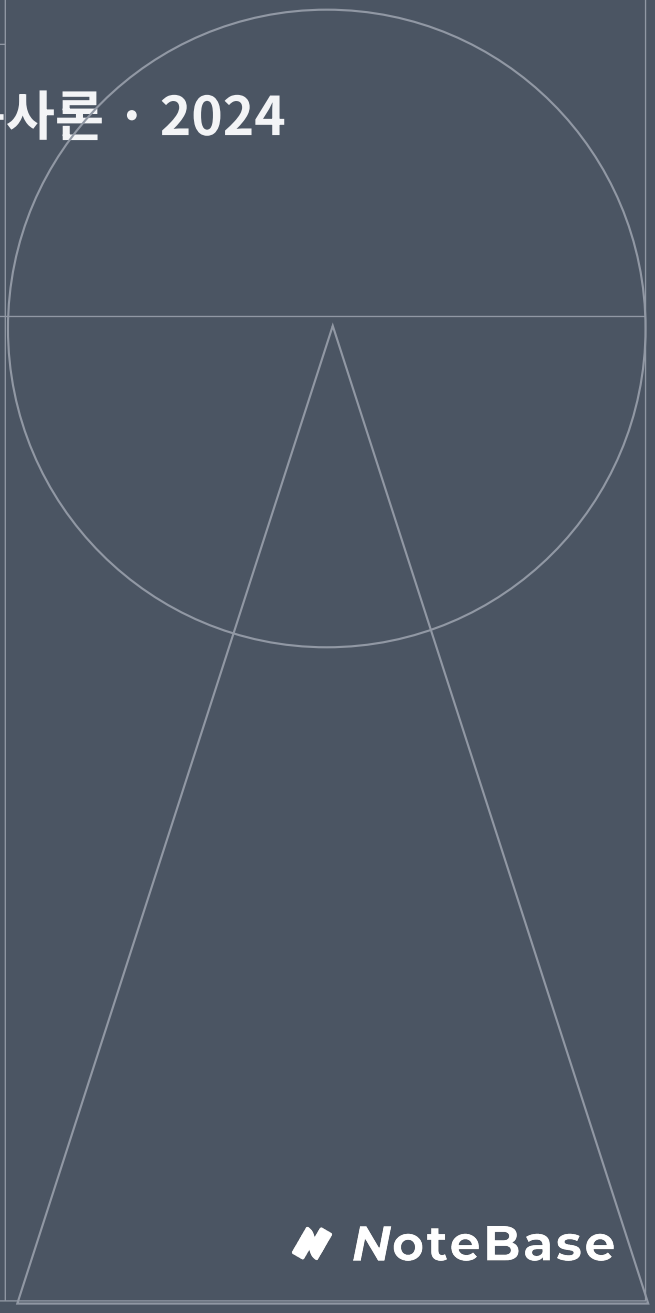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4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4

1. 다음 중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 연차총회에서 참고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독자와 상호작용하고 독자를 돕는 사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멜빌 듀이
② 랑가나단
③ 사무엘 그린
④ 해리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 연차총회에서 참고서비스의 토대가 된 주장을 제시한 인물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사무엘 그린: 사서와 독자의 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사서가 독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제시하여 근대 참고서비스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멜빌 듀이: 듀이십진분류법을 창안하고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직 교육에 기여한 인물이다.
랑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과 콜론분류법으로 대표되는 인물이다.
해리스: 지식 분류 체계를 도서관 분류에 적용한 해리스 분류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멜빌 듀이는 듀이십진분류법과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로 대표된다. 틀린 부분은 1876년 연차총회에서 해당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인물을 멜빌 듀이로 연결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사무엘 그린이다.
② X — 랑가나단은 도서관학 5법칙과 콜론분류법으로 대표된다. 틀린 부분은 1876년의 참고서비스 제안자를 랑가나단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사무엘 그린이다.
③ O — 사무엘 그린은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 연차총회에서 사서와 독자의 인적 관계를 강조하며 사서가 독자를 돕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는 참고서비스의 토대가 되었다.
④ X — 해리스는 지식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도서관 분류법과 연결된다. 틀린 부분은 1876년의 참고서비스 제안자를 해리스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사무엘 그린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멜빌 듀이와 랑가나단은 도서관학의 대표 인물이어서 정답처럼 보이지만,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1876년', '독자와 상호작용', '독자를 돕는 사서'이다. 이 단서들은 사무엘 그린의 참고서비스 사상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이름만 비교하지 않고 제시된 연도와 핵심 업적을 함께 묶어 판단한다. '1876년·사서와 독자의 인적 관계·독자 원조'가 나오면 사무엘 그린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사무엘 그린 = 1876년 = 사서와 독자의 인적 관계 = 참고서비스의 선구자이다.

NoteBase

2. 비밀조사법을 활용해 정보서비스를 평가한다고 전제했을 때 일반적인 정보서비스 평가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다음 중 빈칸 ㉠과 ㉡에 들어갈 업무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평가의 범위 설정 → 평가계획수립 → (㉠) → 평가척도 고안 → (㉡) → 평가실행 → 결과 분석 및 활용

① ㉠ - 테스트 질문 개발, ㉡ - 시범테스트
② ㉠ - 시범테스트, ㉡ -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
③ ㉠ -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 ㉡ - 테스트 질문 개발
④ ㉠ - 테스트 질문 개발, ㉡ -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밀조사법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평가에서 평가계획 수립 뒤에 무엇을 준비하고, 평가척도 고안 뒤에 누구를 준비하는지를 묻는 절차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평가의 범위 설정 → 평가계획 수립 → 테스트 질문 개발 → 평가척도 고안 →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 → 평가실행 → 결과 분석 및 활용

테스트 질문은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점검할 과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므로 평가계획 수립 다음에 놓인다. 평가척도를 마련한 뒤에는 조사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대리 이용자를 선발·교육해야 실제 평가를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테스트 질문 개발'은 맞지만, ㉡의 '시범테스트'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에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이 들어간다.

② X — ㉡의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은 맞지만, ㉠의 '시범테스트'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에 '테스트 질문 개발'이 들어간다.

③ X — 두 단계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테스트 질문 개발은 평가계획 수립 뒤인 ㉠에,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은 평가척도 고안 뒤인 ㉡에 들어간다.

④ O — ㉠은 '테스트 질문 개발', ㉡은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이다. 계획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고, 평가척도를 마련한 뒤 그 질문과 척도를 적용할 대리 이용자를 준비하므로 제시된 흐름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시범테스트도 본 평가 전에 실시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이어서 ①이나 ②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일반 평가 단계의 빈칸은 계획을 측정 과제로 바꾸는 '테스트 질문 개발'과 실제 평가 수행 주체를 준비하는 '대리 이용자 선발 및 교육'이다. 특히 ③처럼 두 핵심 단계를 뒤바꾸지 않도록 선후 의존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항에서는 앞 단계의 산출물이 무엇이고 다음 단계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한다. 평가계획의 산출물은 구체적인 테스트 질문으로 이어지고, 평가척도가 정해진 뒤에는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대리 이용자를 선발·교육한 다음 평가를 실행한다.

암기 포인트

범위 → 계획 → 질문 → 척도 → 대리 이용자 → 실행 → 분석의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3. 다음 중 1961년 로스타인(Samuel Rothstein)이 정보서비스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료 이용방법 지도
② 색인 목록 등 서지 준비
③ 정보의 제공
④ 자료 선택에의 협조, 지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로스테인이 제시한 정보서비스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로스테인은 정보서비스의 기본 기능을 자료 이용방법 지도, 자료 선택에 대한 협조·지원, 정보의 직접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즉 이용자가 자료를 찾고 쓰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고르도록 돕고,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인적 지원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자료 이용방법 지도는 도서관과 자료의 이용법을 알려 주는 교육적 기능이므로 로스테인이 제시한 기능에 해당한다.
② X — '색인 목록 등 서지 준비'를 독립된 기본 기능으로 든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로스테인의 세 기본 기능을 자료 이용방법 지도, 자료 선택에의 협조·지원, 정보의 제공으로 정리한다. 서지 작성은 특정 정보 요구를 지원하는 실무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세 기본 기능 중 하나로 별도 분류되지 않는다.
③ O — 정보의 제공은 사서가 정보가 들어 있는 자료의 위치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요구한 정보 자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④ O — 자료 선택에의 협조·지원은 이용자의 목적과 관심에 맞는 자료를 고르도록 돕는 독서상담·자료선택 지원 기능이므로 로스테인이 제시한 기능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의 '서지 준비'는 실제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럴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가능한 모든 업무가 아니라 로스테인이 구분한 세 가지 기본 기능을 묻고 있으므로, 현장 활동과 기본 기능의 분류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스테인의 기능을 '이용법을 가르친다ㅡ자료를 고르게 돕는다ㅡ정보를 직접 준다'의 세 축으로 대조한다. 이 세 축 밖의 서지 작성·목록 작성 등이 독립 기능처럼 제시되면 오답 여부를 살핀다.

암기 포인트

로스테인 정보서비스 3기능 = 이용지도·선택지원·정보제공이다.

NoteBase

4. 다음 중 IFLA의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원한다.
> 모든 이용자들이 자료와 (㉢)에 동등하게 (㉣)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① ㉠ 지적자유, ㉡ 민주주의, ㉢ 서비스, ㉣ 접근
② ㉠ 지적자유, ㉡ 평등주의, ㉢ 도서관, ㉣ 이용
③ ㉠ 도서관 봉사, ㉡ 민주주의, ㉢ 도서관, ㉣ 접근
④ ㉠ 도서관 봉사, ㉡ 평등주의, ㉢ 서비스, ㉣ 이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이 제시하는 지적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적 자유는 다양한 관점의 정보와 사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원칙이다. 도서관은 지적 자유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인종·신념·성별·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 지적자유, ㉡ 민주주의, ㉢ 서비스, ㉣ 접근의 연결이 성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 ‘지적자유’, ㉡ ‘민주주의’, ㉢ ‘서비스’, ㉣ ‘접근’을 넣으면 ‘지적자유의 발전과 유지’, ‘민주주의적 가치’,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이 되어 성명의 취지와 문맥에 모두 맞는다.
② X — ㉡ ‘평등주의’, ㉢ ‘도서관’, ㉣ ‘이용’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이므로 ㉡은 ‘민주주의’, ㉢은 ‘서비스’, ㉣은 ‘접근’이다.
③ X — ㉠ ‘도서관 봉사’와 ㉢ ‘도서관’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지적자유의 발전과 유지’ 및 ‘자료와 서비스’이므로 ㉠은 ‘지적자유’, ㉢은 ‘서비스’이다.
④ X — ㉠ ‘도서관 봉사’, ㉡ ‘평등주의’, ㉣ ‘이용’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지적자유의 발전과 유지’, ‘민주주의적 가치’,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이므로 ㉠은 ‘지적자유’, ㉡은 ‘민주주의’, ㉣은 ‘접근’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 후반의 ‘동등하게’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만 보고 ㉡을 ‘평등주의’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완성하는 자리이고, 평등의 원리는 뒤에서 모든 이용자의 ‘동등한 접근’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자료와 서비스’는 접근의 대상이고 ‘접근’은 이용자에게 보장해야 할 행위·권리라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하나씩 따로 추측하지 않고 성명의 핵심 연결 구조를 확인한다. ‘발전과 유지’의 대상은 지적 자유, 보호할 기본 가치는 민주주의적 가치, 자료와 나란히 놓이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은 접근이다.

암기 포인트

지적 자유의 발전·유지 →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민의 권리 보호 →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접근이다.

NoteBase

5. 정보서비스의 기능 중 하나인 정보 제공에 관한 철학적 기반을 변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의 흐름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그 흐름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택적 정보수집 - 정보가공 및 재편 -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 문화 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

② 선택적 정보수집 - 지식 활용과 습득 - 정보가공 및 재편 - 학술 문화 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

③ 정보가공 및 재편 - 학술 문화 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 - 지식 활용과 습득 - 선택적 정보 수집

④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 문화 기술의 발전 - 정보가공 및 재편 - 선택적 정보수집 - 문명의 진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보서비스의 정보 제공이 개인의 지식 형성에서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흐름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선택적 정보수집 —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골라 확보하는 단계이다.
2. 정보가공 및 재편 —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단계이다.
3. 지식 활용과 습득 — 가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단계이다.
4. 학술·문화·기술의 발전 — 축적·활용된 지식이 사회적 성과와 발전으로 확장되는 단계이다.
5. 문명의 진보 — 학술·문화·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먼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이를 가공할 수 있고, 가공된 정보를 통해 지식을 습득·활용해야 학술·문화·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선택적 정보수집 → 정보가공 및 재편 →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문화·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의 인과적 흐름을 정확히 제시한다.
② X — '지식 활용과 습득'이 '정보가공 및 재편'보다 앞선 부분이 잘못되었다. 수집한 정보를 먼저 가공·재편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지식을 활용하고 습득한다. 올바르게는 선택적 정보수집 → 정보가공 및 재편 →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문화·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이다.
③ X — '선택적 정보수집'을 마지막에 둔 부분을 비롯해 전체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 정보수집은 정보가공의 전제이고, 학술·문화·기술의 발전은 지식 활용과 습득 뒤에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선택적 정보수집 → 정보가공 및 재편 →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문화·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이다.
④ X — '지식 활용과 습득'을 첫 단계에 두고 '정보가공 및 재편'과 '선택적 정보수집'을 뒤에 둔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식을 활용·습득하려면 정보수집과 정보가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르게는 선택적 정보수집 → 정보가공 및 재편 → 지식 활용과 습득 → 학술·문화·기술의 발전 → 문명의 진보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첫 단계와 마지막 두 단계가 맞아 보이지만, 가운데의 '정보가공 및 재편'과 '지식 활용과 습득'을 바꾸어 놓았다. 정보는 수집한 즉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재편을 거쳐 이용될 때 지식의 습득과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항에서는 정보의 확보 → 처리 → 개인의 지식화 → 사회적 발전 → 문명 발전의 순서로 판단한다. 특히 '정보가공'은 '정보수집' 뒤, '지식 활용과 습득' 앞에 놓인다는 선후관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집 → 가공 → 지식 → 학술·문화·기술 → 문명 순으로 기억한다.

NoteBase

6. 교육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 협조, 독자상담지도 등 초기 정보서비스 이념을 이어받은 이용자교육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② 보수적인 이론 또는 최소 이론이라고도 한다.

③ 교육이론의 정당성은 도서관 교육이 생애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참고사서에 대한 신뢰와 능률성에 바탕을 두어 해답의 최종결과를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교육의 기원·최소 이론·정당성을 이해하고, 이용자교육과 참고봉사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용자교육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검색 도구를 스스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식과 탐색 방법을 가르치는 활동이다. 핵심은 해답 자체를 대신 제시하는 데 있지 않고, 이용자의 자립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이용자 협조, 독자상담지도 등 초기 정보서비스에는 이용자에게 자료 이용법과 탐색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적 요소가 있었으므로, 이용자교육은 이러한 서비스 이념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② O — 보수적 이론 또는 최소 이론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과 방법을 가르치는 입장이므로 이용자교육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③ O — 도서관 교육은 이용자가 학교 밖에서도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 주므로 생애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용자교육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참고사서에 대한 신뢰와 능률성에 바탕을 두어 해답의 최종결과를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사서가 이용자의 질문에 직접 해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봉사의 관점에 가깝다. 이용자교육의 핵심은 이용자가 자료와 정보원을 스스로 탐색·평가·활용할 수 있도록 과정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참고사서에 대한 신뢰', '능률성', '최종결과 제시'는 정보서비스와 관련되어 보여 그럴듯하지만, 이용자를 교육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서가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활동을 설명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사서가 최종 해답을 제공한다'고 하면 참고봉사로, '이용자가 스스로 찾도록 자료 이용법과 탐색 과정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용자교육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참고봉사는 해답 제공, 이용자교육은 탐색 능력의 자립이다.

NoteBase

7. 참고면담 과정에서 이용자의 질문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문내용에 대한 검토 및 확인
② 필요한 경우 다른 담당자와의 협업 구축
③ 사서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
④ 다른 이용자의 동일한 질문 제기 시 활용을 위한 대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참고면담 과정에서 이용자의 질문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과, 기록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문 기록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 과정을 공유하며, 이후 같은 질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질문 내용과 처리 경과를 남기는 것이다. 질문 자체와 서비스 과정의 확인·협업·재활용이 핵심이며, 개별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질문 내용을 기록하면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고, 이해한 질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O — 기록된 질문과 처리 경과는 필요할 때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 간 협업을 구축하는 데 활용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서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이다. 질문 기록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별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문과 처리 과정을 관리하고 참고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④ O — 과거 질문 기록은 다른 이용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 기존의 탐색 결과와 답변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비 자료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평가'라는 말 때문에 서비스 개선과 혼동하기 쉽다. 질문 기록은 참고정보서비스의 운영을 돌아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서의 업무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록의 본래 이유는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 기록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이용자의 요구 확인, 담당자 간 공유, 유사 질문에 대한 재활용처럼 질문 해결에 직접 연결되는지를 본다. 개인의 근무 성과나 업무 효율성 평가처럼 인사평가에 가까운 내용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질문 기록은 확인·협업·재활용을 위한 것이며, 개인 사서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8. 정보서비스를 연구한 학자와 이론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Galvin - 교육이론
② McClure - 자유이론
③ McCombs - 참고과정이론
④ Winsor - 중도이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의 제공 수준과 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대표 학자와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Galvin: 참고과정이론 —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의 질문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이용자·사서·정보원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McClure: 자유이론 —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사서가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McCombs: 중도이론 — 질문과 상황에 따라 교육 중심의 최소 봉사와 적극적인 최대 봉사를 탄력적으로 선택한다.
Winsor: 보수이론(교육이론) — 사서가 해답을 대신 모두 제공하기보다 이용자가 도서관과 자료를 스스로 이용하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 Galvin을 교육이론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Galvin－참고과정이론이다.
② O — McClure는 자유이론의 학자이다. 자유이론은 사서가 이용자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X — McCombs를 참고과정이론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McCombs－중도이론이다.
④ X — Winsor를 중도이론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Winsor－보수이론(교육이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교육이론과 참고과정이론은 모두 이용자와 사서의 관계를 다루므로 학자를 바꾸어 연결하기 쉽다. 특히 McCombs는 참고과정이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봉사 수준을 조절하는 중도이론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을 대표 연결어와 짝지어 판단한다. Galvin은 과정, McClure는 최대 봉사인 자유, McCombs는 중도, Winsor는 이용자 교육 중심의 보수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alvin＝참고과정, McClure＝자유, McCombs＝중도, Winsor＝보수·교육이다.

NoteBase

9. 다음 중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어와 대체로 일치한다.
② 우발적이기에 통제가 불가능하다.
③ 인간세계에 있어서 보편적, 자연적이며 학습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④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확인시킬 수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구별되는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이나 문장의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라 표정, 몸짓, 자세, 시선, 거리, 목소리의 억양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로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명시적인 언어 기호를 사용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반복하여 확인하기 쉽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대체로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있지만, 표정이나 몸짓이 말과 모순되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틀린 표현은 '언어와 대체로 일치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대체하거나 경우에 따라 언어와 불일치할 수 있다'이다.

② O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반응은 감정과 함께 무의식적·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우발적이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해당한다.

③ O
기본적인 표정이나 몸짓 등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언어처럼 문법과 어휘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사용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보편적·자연적이며 비학습적이라는 설명은 이 문항에서 제시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O
비언어적 신호는 의미가 명시적인 문장으로 고정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언어처럼 정확하게 되풀이하여 확인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의 '일치한다'가 함정이다. 비언어적 단서가 말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언제나 언어와 일치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표정은 불쾌할 수 있듯이 두 메시지는 불일치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선지는 '비언어적 단서가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가', '완전한 통제가 어려운가',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대체·모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제나 일치한다'처럼 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특히 주의한다.

암기 포인트

비언어는 자연적·즉각적·통제 곤란이며, 언어를 보완하기도 하고 모순하기도 한다.

NoteBase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참고면담 교수전략의 교수전략코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용자로 하여금 이미 수행했던 단계를 설명하거나 보여주도록 권한다.
- 사서가 단지 관찰하는 동안에 이용자가 행동을 시작하도록 장려한다.
- 이용자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허용한다.

① Make Introduction
② Let Users Drive
③ Show, Don't Tell
④ Catch them Being Good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참고면담에서 사서와 이용자 중 누가 문제 해결 행동을 주도하는지를 보고 교수전략코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et Users Drive는 사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신 수행하지 않고,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이미 해 본 과정을 설명하거나 보여 주도록 하는 교수전략이다. 핵심 단서는 '이용자가 시작한다·결정한다·행동한다'이다.
Make Introduction은 교수 상황을 시작하며 학습할 내용이나 활동을 소개하는 전략이다.
Show, Don't Tell은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수행이나 시범을 보여 주는 전략이다.
Catch them Being Good은 이용자가 올바르게 수행한 행동을 발견하여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문은 활동의 도입이나 소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설명·결정·행동의 주도권을 주는 내용이다. ‘Make Introduction’이 아니라 ‘Let Users Drive’로 고쳐야 한다.
② O — 이용자가 이미 수행한 단계를 설명하거나 보여 주고, 행동을 시작하며,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세 문장이 모두 이용자 주도의 참여를 뜻한다.
③ X — 제시문은 사서가 시범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설명하고 행동하도록 한다. ‘Show, Don’t Tell’이 아니라 ‘Let Users Drive’로 고쳐야 한다.
④ X — 제시문에는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발견하여 칭찬하거나 강화한다는 내용이 없다. ‘Catch them Being Good’이 아니라 ‘Let Users Drive’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첫 문장의 ‘보여주도록 권한다’만 보고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보여 주는 주체가 사서가 아니라 이용자이며, 뒤의 ‘이용자가 행동을 시작한다’와 ‘이용자가 결정한다’가 주도권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수전략코드 문항에서는 행동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이용자가 설명하고 결정하고 직접 행동하면 Let Users Drive, 사서의 실제 시범이 중심이면 Show, Don’t Tell,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인정과 강화가 중심이면 Catch them Being Good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용자가 결정하고 행동한다 = Let Users Drive이다.

NoteBase

11. 아래 ㉠과 ㉡에서 설명하는 단체를 순서대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1999년 탄생, 학술연구정보지원, 대학교육 지원, 다수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가 전면 개편한 이후 ScienceON으로 서비스 제공, KESLI 운영, 과학기술정보와 논문, 특허, 보고서 등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①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②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학술정보
③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④ ㉠ 한국학술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설립 배경·서비스 영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대학 교육·학술연구정보 지원과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 지원이 핵심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정보와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ScienceON과 KESLI를 운영하고 논문·특허·보고서 등 과학기술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별 기준은 '교육·대학·학술연구 지원'이면 KERIS, '과학기술정보·ScienceON·KESLI'이면 KISTI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1999년 탄생, 학술연구정보 지원, 대학교육 지원,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해당한다. ㉡의 ScienceON, KESLI, 과학기술 분야 논문·특허·보고서 서비스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모두 적절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을 '한국학술정보'로 연결한 것이다. ㉡은 ScienceON과 KESLI를 운영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과 ㉡의 기관을 서로 바꾼 연결이다. ㉠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을 '한국학술정보', ㉡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학술정보'처럼 명칭에 '학술정보'가 공통으로 들어가므로 이름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의 '대학교육'과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의 'ScienceON·KESLI'가 기관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명보다 대표 이용자와 서비스명을 먼저 확인한다. 교육·대학 지원과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학기술정보와 ScienceON·KESLI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교육·대학은 KERIS, 과학기술·ScienceON·KESLI는 KISTI이다.

NoteBase

12.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
① JCR
② ProQuest Central
③ ScienceDirect
④ Web of Scienc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분석 단위가 학술 문헌인지 학술지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JCR은 인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영향력과 순위 등을 평가하는 학술지 단위의 분석 데이터베이스이다. 반면 ProQuest Central, ScienceDirect, Web of Science는 제공 범위와 원문 제공 여부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용자가 논문 등 학술 문헌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데 쓰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JCR(Journal Citation Reports)은 Journal Impact Factor 등 학술지 단위의 지표와 분야별 순위 정보를 제공하여 학술지를 평가·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② X — ProQuest Central은 여러 주제 분야의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신문, 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다수 자료의 원문을 이용하는 종합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학술지 평가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다양한 문헌을 검색·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③ X — ScienceDirect는 학술지 논문과 도서 등의 원문을 검색·이용하는 학술 콘텐츠 플랫폼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학술지 영향력과 순위를 산출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학술 문헌의 원문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④ X — Web of Science는 학술 논문 등의 서지정보와 인용관계를 검색·분석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이다. 틀린 판단은 이를 학술지 자체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JCR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개별 학술 문헌의 검색과 인용 추적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오답 포인트

Web of Science도 인용정보를 제공하므로 JCR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Web of Science의 중심 단위는 논문 등 개별 문헌과 그 인용관계이고, JCR의 중심 단위는 학술지와 그 평가 지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가 무엇을 평가하거나 검색하게 하는지 확인한다. 학술지의 영향력·순위·Journal Impact Factor가 핵심이면 JCR이고, 논문·도서 등 문헌의 검색, 원문 이용 또는 인용 추적이 핵심이면 나머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JCR은 학술지 평가, Web of Science는 문헌 인용 추적, ProQuest Central과 ScienceDirect는 학술 콘텐츠 검색·이용이다.

NoteBase

13. 다음 설명에 가장 적절한 도서관서지네트워크는 무엇인가?

- 1996년부터 인터넷 서비스 실시 기반으로 추진된 네트워크
- 2020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사업 추진
- 초창기 9개 기관이 참여, 협력하였으며 2024년 현재도 9개 기관의 참여·협력 구조
- 메타 검색, 검색엔진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 국가전자도서관
④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1996년 인터넷 서비스 시작, 8차 사업, 9개 기관의 참여·협력, 메타 검색이라는 단서를 종합하여 해당 도서관서지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가전자도서관은 여러 참여 기관의 정보자원을 인터넷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한 국가 차원의 전자도서관 서비스이다. 제시문의 핵심 식별어는 '1996년', '9개 기관', '메타 검색'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각각 특정 분야의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는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체이다. 이들은 제시문이 설명하는 네트워크의 명칭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학술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제시된 국가 차원의 전자도서관 네트워크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가전자도서관'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유통과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제시문의 9개 기관 연계형 메타 검색 네트워크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전자도서관'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국가전자도서관은 1996년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러 기관이 참여·협력하며 메타 검색을 제공해 왔다는 제시문의 단서에 모두 부합한다.

④ X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는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이므로, 제시된 국가전자도서관 서비스와는 성격과 명칭이 다르다. 틀린 표현 '학술정보공동활용협의회'는 '국가전자도서관'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에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협의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운영 주체나 참여 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연혁과 메타 검색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의 고유 명칭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서관 네트워크 식별 문제에서는 시작 연도, 참여 기관 수, 검색 방식이라는 고유 단서를 먼저 묶는다. '1996년 시작·9개 기관·메타 검색'이 함께 제시되면 국가전자도서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996년·9개 기관·메타 검색은 국가전자도서관이다.

NoteBase

14. 다음 중 도서관 컨소시엄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카이브 프로젝트
② 정보자료 라이선싱
③ 협동참고서비스
④ 전자자료 구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서관 컨소시엄의 핵심인 도서관 간 협력 활동과 개별 도서관의 전자자료 자체 구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서관 컨소시엄은 여러 도서관이 자원의 선정·수집·보존·이용과 정보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용 범위를 넓히는 협력체이다. 아카이브 프로젝트, 정보자료 공동선정, 협동참고서비스는 기관 간 협력이 전제되므로 컨소시엄 활동에 해당한다. 전자자료와 관련한 대표적인 컨소시엄 활동은 각 도서관이 전자자료를 따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 공동 라이선스 계약,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참여 도서관이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하게 하는 협력 사업이므로 컨소시엄 활동으로 적절하다.
② O — 정보자료 공동선정은 참여 도서관이 장서 개발을 협의하여 중복을 줄이고 자원을 분담하는 활동이므로 적절하다.
③ O — 협동참고서비스는 한 도서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질의를 다른 참여 도서관과 연계하여 답변하는 공동 정보서비스이므로 적절하다.
④ X — '전자자료 구축'은 개별 도서관이 전자자료를 직접 생산·구축하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도서관 간 협력을 나타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전자자료 구축'이며, 올바르게는 '전자자료의 공동구매·공동 라이선스 계약·공동이용'과 같은 활동이다.

오답 포인트

④에 '전자자료'가 들어 있어 컨소시엄의 전자정보원 공동이용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 도서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인지 여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 공동선정·공동보존·상호의뢰·공동구매처럼 기관 간 협력 관계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한다. 단순한 자체 구축은 협력 활동이 아니지만 공동구매와 공동이용은 컨소시엄 활동이다.

암기 포인트

컨소시엄은 '공동선정·공동보존·협동서비스·공동이용'이고, 단순한 자체 구축은 아니다.

NoteBase

15. 다음 중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인 LibQUAL+의 대분류 3개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 인력에 대한 만족도 평가
② 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 평가
③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평가
④ 정보 및 정보원 통제에 대한 평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LibQUAL+의 대표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 차원 3가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LibQUAL+는 이용자가 지각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형이다. 대표적인 3개 차원은 서비스 영향력(Affect of Service), 정보 통제(Information Control), 장소로서의 도서관(Library as Place)이다. 서비스 영향력은 직원의 친절성·신뢰성·도움 제공 등 이용자가 경험한 인적 서비스를 평가한다. 정보 통제는 필요한 정보와 정보자원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장소로서의 도서관은 학습·연구 공간으로서 도서관 환경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서비스 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LibQUAL+의 독립된 대표 차원명이 아니므로 3개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 영향력' 차원에서 다룬다.
② X — '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 평가'는 LibQUAL+의 대표 차원인 서비스 영향력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틀린 판단을 바로잡으면 '서비스 영향력에 대한 인식 평가는 대표 3개 차원에 포함된다'이다.
③ X —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학습·연구 공간과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는 대표 차원이므로 포함된다. 틀린 판단을 바로잡으면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대표 3개 차원에 포함된다'이다.
④ X — '정보 및 정보원 통제에 대한 평가'는 정보와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활용의 편리성을 평가하는 정보 통제 차원이므로 포함된다. 틀린 판단을 바로잡으면 '정보 및 정보원 통제에 대한 평가는 대표 3개 차원에 포함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서비스 인력'이 직원 관련 평가라는 점 때문에 '서비스 영향력'과 같은 차원명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서비스 인력에 관한 만족은 서비스 영향력의 세부 내용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인력에 대한 만족도' 자체가 별도의 대표 차원은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사람의 서비스 경험이면 서비스 영향력, 정보 접근·활용이면 정보 통제, 공간과 환경이면 장소로서의 도서관에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이 세 범주와 별도로 제시된 표현은 대표 3개 차원명이 아닌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LibQUAL+의 3차원은 '사람의 서비스 영향력·정보의 통제·도서관의 장소성'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계량정보학 연구에 공헌이 큰 연구자로서 서지결합법을 만들어낸 학자는 누구인가?

① Bradford
② Kessler
③ Lotka
④ Zipf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계량정보학의 주요 학자와 대표 법칙·분석 기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서지결합법을 제안한 학자는 Kessler이다.

핵심 정리

Bradford: 문헌의 분산 법칙 — 특정 주제의 논문이 소수의 핵심 학술지와 다수의 주변 학술지에 분산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Kessler: 서지결합법 — 두 문헌이 공통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이 많을수록 두 문헌의 주제적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
Lotka: 저자 생산성 법칙 — 일정 수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의 수가 논문 수의 제곱에 대체로 반비례한다고 본다.
Zipf: 최소노력의 법칙 — 단어의 사용 빈도는 빈도 순위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Bradford를 서지결합법과 연결한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Bradford는 특정 주제 문헌이 학술지에 분산되는 양상을 설명한 Bradford의 문헌 분산 법칙과 연결된다.
② O — Kessler는 두 문헌이 함께 인용한 공통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문헌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서지결합법을 제안하였다.
③ X — Lotka를 서지결합법과 연결한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Lotka는 논문 수와 해당 수의 논문을 쓴 저자 수의 관계를 설명한 저자 생산성 법칙과 연결된다.
④ X — Zipf를 서지결합법과 연결한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Zipf는 단어의 사용 빈도와 빈도 순위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한 최소노력의 법칙과 연결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사람 모두 계량정보학의 대표 연구자이므로 이름만 익숙하게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Kessler의 서지결합과 Bradford의 문헌 분산, Lotka의 저자 생산성, Zipf의 단어 빈도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통 참고문헌으로 두 문헌을 연결하면 서지결합이며 Kessler로 판단한다. 학술지 분산은 Bradford, 저자별 논문 생산성은 Lotka, 단어의 빈도와 순위는 Zipf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Kessler = 공통 참고문헌 = 서지결합이다.

NoteBase

17. 다음 중 정보학자 Luhn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색인과 자동초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다.
②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서비스 개발의 시초가 되었다.
③ KWIC(Keyword-in-Context) 색인을 적용하였다.
④ 유니텀 개념을 제시하고 조합색인 기법을 창안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보학자 H. P. Luhn의 대표 업적과 다른 학자의 업적을 구별하여, Luhn의 업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H. P. Luhn: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색인·자동초록 알고리즘, SDI의 선구적 구상, KWIC 색인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Mortimer Taube: 유니텀(Uniterm)을 제시하고, 여러 단위어를 조합하여 문헌을 검색하는 조합색인(coordinate indexing)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Luhn은 문헌의 단어 출현 빈도와 문장 내 중요도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자동색인 및 자동초록 알고리즘을 개발·발전시켰다.
② O — Luhn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맞추어 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③ O — Luhn은 표제어와 그 문맥을 함께 제시하는 KWIC(Keyword-in-Context) 색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④ X — 틀린 표현은 ‘Luhn이 유니텀 개념을 제시하고 조합색인 기법을 창안하였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유니텀 개념과 조합색인은 Mortimer Taube의 업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자동색인, KWIC, 조합색인이 모두 색인 분야의 용어라는 점을 이용해 서로 다른 학자의 업적을 섞은 함정이다. 특히 ④의 유니텀·조합색인은 Luhn이 아니라 Taube와 연결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명과 대표 키워드를 짝으로 연결한다. Luhn은 자동색인·자동초록·SDI·KWIC, Taube는 유니텀·조합색인으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Luhn = 자동색인·자동초록·SDI·KWIC / Taube = 유니텀·조합색인

NoteBase

18.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 자료의 관리나 기획, 설명에 초점을 두는 작업이다.
-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서의 데이터 가공 업무가 동반되는 작업이다.
- 자료의 생애주기별 가치 부여 및 가치 부여 기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 이용자, 사회에 대한 요구 분석에 기반된다.

① 정보안내서비스
② 이용자교육
③ 디지털 큐레이션
④ 데이터 리터러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료의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면서 가치를 더하고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특징을 다른 정보서비스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자료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선별·관리·보존하고, 설명과 가공을 통해 지속적인 접근·재이용과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데이터 관리·기획·설명, 사서의 데이터 가공, 생애주기별 가치 부여, 이용자와 사회의 요구 분석이다.
정보안내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정보원·기관·서비스를 안내하는 활동이고, 이용자교육은 이용자가 정보원과 검색 도구를 스스로 활용하도록 가르치는 활동이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며 분석·평가·활용하는 능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정보안내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맞는 정보원·기관·서비스를 찾아 안내하는 활동이다. 제시문처럼 자료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정보안내서비스'는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이용자교육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자료·서비스·검색 도구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법을 가르치는 활동이다. 사서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애주기별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이용자교육'은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료의 관리·기획·설명에 초점을 두고, 자료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가공·보존·재이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이용자와 사회의 요구를 분석해 수행한다는 설명도 이에 부합한다.
④ X —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며 분석·평가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다. 자료 자체를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업무 개념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인 '데이터 리터러시'는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보활용', '이용자 요구', '데이터'라는 공통 표현만 보고 정보안내서비스·이용자교육·데이터 리터러시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자료의 생애주기별 가치 부여'와 '사서의 데이터 가공 업무'이며, 이는 능력이나 교육이 아니라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 보존, 데이터 가공, 맥락 설명, 재이용, 가치 창출이 함께 제시되면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판단한다. 질문에 맞는 정보원 안내는 정보안내서비스, 이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용자교육, 데이터를 이해·분석·활용하는 능력은 데이터 리터러시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를 관리하여 보존·재이용·가치 창출을 이어 가는 활동이다.

NoteBase

19.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병영도서관 시설 및 자료 보유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병영도서관 설치 대상은 중대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병영도서관의 자료 보유 기준은 서고 면적이 42m²인 점을 고려 5,000권으로 한다.

③ 병영도서관 보유부대는 사무실, 생활관 등에 분산 보관 중인 도서자료를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진중문고로 보급되는 도서는 소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상 병영도서관의 설치 대상, 시설·자료 보유 기준, 분산 자료의 통합 관리, 진중문고 비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병영도서관은 장병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 설치하는 도서관이다. 진중문고는 장병의 교양 증진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선정·보급되는 도서이다.

핵심 구분

시험 당시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2조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설치 대상은 육군·해군·공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이며, 서고 면적 $42m^2$를 기준으로 장서 6,000권을 둔다. 간부연구실·독신자 숙소·사무실·생활관 등에 흩어진 도서는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진중문고는 소대급이 아니라 중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병영도서관의 설치 대상은 중대급 이상이 아니라 육군·해군·공군의 대대급 이상 부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다.
틀린 표현: 중대급 이상
올바른 표현: 대대급 이상

② X
서고 면적 $42m^2$를 고려한 자료 보유 기준은 5,000권이 아니라 6,000권이다.
틀린 표현: 5,000권
올바른 표현: 6,000권

③ O
병영도서관 보유부대는 간부연구실·독신자 숙소·사무실·생활관 등에 분산 보관된 도서자료를 병영도서관에 통합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훈령의 문언과 일치한다.

④ X
진중문고는 소대급 부대가 아니라 중대급 부대에 1년 이상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병영도서관에 비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소대급 부대
올바른 표현: 중대급 부대

오답 포인트

①과 ④는 모두 부대 편제 단위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병영도서관의 설치 대상은 대대급 이상이고, 진중문고의 1년 이상 비치 단위는 중대급이라는 차이를 혼동하기 쉽다. ②는 $42m^2$라는 면적은 맞게 두고 장서 수만 6,000권에서 5,000권으로 바꾼 수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설·자료 기준 문항에서는 설치 단위, 면적, 장서 수, 비치 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대조한다. 이 문항은 병영도서관은 대대급, 진중문고는 중대급·1년, 장서는 6,000권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병영도서관은 대대급·6,000권, 진중문고는 중대급·1년, 분산 도서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NoteBase

20. 2024년 현재 ABI/INFORM의 내용 및 관리 구조에 관한 상황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영, 경제 이론, 비즈니스 정보, 산업 및 무역 관련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이다.

② Dialog가 이 회사에 인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③ ProQuest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Clarivate에서 ProQuest를 인수했다.

④ Academic Search Premier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ABI/INFORM의 수록 분야와 제공·인수 관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특히 ProQuest 계열의 ABI/INFORM과 EBSCO의 Academic Search Premier를 같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ABI/INFORM은 경영·경제·산업·기업·무역 관련 학술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ProQuest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다. ProQuest는 Dialog를 인수해 ProQuest Dialog로 서비스했으며, Clarivate는 2021년 ProQuest 인수를 완료했다. 반면 Academic Search Premier는 EBSCO가 제공하는 다학문 분야 데이터베이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BI/INFORM은 경영학과 경영이론, 경제·경기 동향, 기업·산업 및 무역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비즈니스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ProQuest는 2008년 Thomson Reuters로부터 Dialog 사업을 인수했고, 이후 ProQuest Dialog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O — ABI/INFORM은 ProQuest가 제공·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Clarivate는 2021년 12월 ProQuest 인수를 완료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Academic Search Premier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ABI/INFORM은 ProQuest 계열에서 제공하고, Academic Search Premier는 EBSCO에서 제공한다.

오답 포인트

두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도서관에서 널리 이용되는 원문 데이터베이스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공사를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④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제 범위가 아니라 제공 회사의 소속 관계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는 '주제 분야—제품명—제공사—인수 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ABI/INFORM·Dialog는 ProQuest 계열, Academic Search Premier는 EBSCO 계열이라는 연결 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BI/INFORM·Dialog는 ProQuest, Academic Search Premier는 EBSCO, ProQuest의 모회사는 Clarivate이다.

NoteBase

21.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인용색인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SCI
② SCIE
③ SCOPUS
④ A&HCI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SCI·SCIE·A&HCI와 SCOPUS의 제공 기관 및 데이터베이스 성격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CI, SCIE, A&HCI는 Clarivate 계열의 인용색인으로 각각 과학, 확장 과학, 예술·인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SCOPUS는 Elsevier가 제공하는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분야는 서로 달라도
SCI·SCIE·A&HCI는 같은 계열이고, SCOPUS는 제공 기관과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 SCI를 성격이 다른 색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SCI는 Clarivate 계열의 과학 분야 인용색인으로, SCIE 및 A&HCI와 같은 계열이다.
② X — SCIE를 성격이 다른 색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SCIE는 Clarivate 계열의 확장 과학 인용색인으로, SCI 및 A&HCI와 같은 계열이다.
③ O — SCOPUS는 Elsevier가 제공하는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이므로 Clarivate 계열인 나머지 세 색인과 제공 기관 및 체계가 다르다.
④ X — A&HCI를 성격이 다른 색인으로 보는 판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A&HCI는 Clarivate 계열의 예술·인문 분야 인용색인으로, SCI 및 SCIE와 같은 계열이다.

오답 포인트

④ A&HCI는 수록 분야가 예술·인문으로 달라 눈에 띄지만, 문제의 결정적 구분 기준은 학문 분야가 아니라 제공 기관과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용색인의 성격을 비교할 때 먼저 제공 기관을 확인한다. SCI·SCIE·A&HCI는 Clarivate 계열로 묶고, SCOPUS는 Elsevier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SCI·SCIE·A&HCI는 Clarivate, SCOPUS는 Elsevier이다.

NoteBase

22. 도서관 네트워크의 발전사를 서술한 것이다. 다음 중 그 연대와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 전산시스템이 도서관에 응용되기 시작

② 1960년대: 미 의회도서관의 기계가독형 목록(MARC) 개발

③ 1970년대: 도서관 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서지네트워크 발전 가속

④ 1980년대: 서버 중심의 통합 처리 시스템의 확산 시작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서관 전산화와 서지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대별 핵심 기술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1950년대 — 전자식 데이터 처리와 전산 기술이 도서관 업무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2. 1960년대 — 미국 의회도서관이 기계가독형목록인 MARC를 개발하여 서지정보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한다.
3. 1970년대 — 도서관 자체 자동화시스템의 구축이 늘고 OCLC 등 서지 네트워크가 성장한다.
4. 1980년대 — 도서관 네트워크가 본격화되고 개인용 컴퓨터와 CD-ROM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활용이 확대된다.
5. 1990년대 — 인터넷 환경과 함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통합 도서관시스템이 확산된다.

왜 이 순서: 전산 기술의 개별 업무 적용에서 서지정보의 표준화, 기관 자동화와 네트워크화, 통합 시스템의 확산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1950년대에는 펀치카드와 전자식 데이터 처리 등 전산 기술을 도서관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연대 연결이 적절하다.
② O — 미국 의회도서관의 MARC 개발은 1960년대의 대표적 사건이며, 서지레코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O — 1970년대에는 개별 도서관의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확대되고 OCLC와 같은 서지 네트워크가 성장했으므로 설명이 적절하다.
④ X — 틀린 부분은 '1980년대: 서버 중심의 통합 처리 시스템의 확산 시작'이다. 올바르게는 '1990년대: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통합 도서관시스템 확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1980년대의 핵심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본격화와 개인용 컴퓨터·CD-ROM 등의 활용 확대이다.

오답 포인트

1980년대에도 통합 도서관시스템 자체는 발전했기 때문에 ④를 맞는 설명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선지의 핵심 표현은 '서버 중심'이며, 시험의 연대 구분에서는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통합 시스템의 확산을 1990년대와 연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대형 문항은 '전산 적용 → MARC 표준화 → 자동화·서지 네트워크 성장 → 네트워크 본격화와 PC 활용 → 클라이언트/서버 통합 시스템'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사건명뿐 아니라 기술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50 전산 적용, 60 MARC, 70 자동화·서지망, 80 네트워크·PC, 90 클라이언트/서버 통합이다.

NoteBase

23. 다음 법칙을 정리하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 인용자료를 확인하고 관계를 파악하는게 특정 학문 분야 파악에 도움을 준다.
- 인용집중법칙이라는 법칙을 발표했다.
- 인용분석을 통해 학술잡지의 관계, 논문의 가치 등을 평가 가능하다.
- 인용 영향도를 Impact Factor로 평가한다.

① Bradford
② Garfield
③ Pao
④ Zipf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인용색인, 인용집중법칙, 인용분석, Impact Factor라는 단서를 해당 학자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Garfield: 인용색인을 고안·발전시키고 인용분석을 학술지와 논문의 영향 평가에 활용했으며, 인용집중법칙과 학술지 Impact Factor를 제시한 학자이다.
Bradford: 특정 주제의 논문이 소수 핵심 학술지와 다수 주변 학술지에 분산된다는 문헌분산법칙과 연결된다.
Pao: 계량정보학 연구에서 Lotka 법칙 등 서지계량 법칙을 실증적으로 적용·검토한 학자이다.
Zipf: 문헌에서 단어의 사용 빈도와 빈도 순위가 대체로 반비례한다는 단어빈도법칙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Bradford는 특정 분야의 문헌이 학술지에 분산되는 현상과 핵심 학술지를 설명한 학자이다. 틀린 표현은 'Bradford'이며, 제시된 인용색인·인용집중법칙·Impact Factor의 학자는 Garfield이다.
② O — Garfield는 인용자료로 학문 분야의 관계와 논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인용색인을 발전시켰고, 인용집중법칙과 학술지 Impact Factor를 제시했다. 네 단서가 모두 Garfield와 일치한다.
③ X — Pao는 Lotka 법칙을 비롯한 서지계량 법칙을 실증적으로 적용·검토한 연구와 연결된다. 틀린 표현은 'Pao'이며, 제시된 네 업적의 학자는 Garfield이다.
④ X — Zipf는 문헌의 단어 빈도와 빈도 순위의 관계를 설명한 단어빈도법칙과 연결된다. 틀린 표현은 'Zipf'이며, 제시된 네 업적의 학자는 Garfield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Bradford와 Zipf도 서지계량학의 대표 법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말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인용색인과 Impact Factor가 함께 나오면 Garfield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보다 결정적 업적을 먼저 찾는다. 인용색인·Impact Factor는 Garfield, 학술지의 문헌 분산은 Bradford, 단어의 빈도와 순위는 Zipf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Garfield = 인용색인 + 인용집중법칙 + Impact Factor이다.

NoteBase

24. 정보탐색 전략 및 방법 중 Citation Pearl Growing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탐색자가 알고 있는 저자명이나 서명 활용
② 참고문헌의 적절한 활용 가능
③ 확인된 주제나 키워드에서 시작
④ 하나의 작은 인용 항목에서 상위 개념으로 확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Citation Pearl Growing이 이미 관련성이 확인된 문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용관계와 서지정보를 따라 탐색을 확장하는 방법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itation Pearl Growing은 적합한 문헌 한 건을 진주(pearl)처럼 출발점으로 삼고, 그 문헌의 저자명·서명·참고문헌·인용관계·색인어 등을 단서로 관련 문헌을 연쇄적으로 찾아가는 탐색 방법이다. 결정적인 구분 기준은 일반적인 주제어나 키워드 자체가 아니라 관련성이 확인된 인용 문헌에서 탐색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알고 있는 저자명이나 서명으로 이미 관련성이 있는 문헌을 먼저 찾아 출발 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출발 문헌의 참고문헌을 따라가면 그 문헌이 인용한 선행 연구로 탐색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확인된 주제나 키워드에서 시작'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제·키워드 탐색의 출발 방식이며, Citation Pearl Growing은 관련성이 확인된 문헌 또는 인용 항목에서 시작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 하나의 관련성 높은 인용 항목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문헌의 인용관계와 서지·색인 단서를 이용하면서 관련 문헌 및 더 넓은 개념으로 탐색을 확장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확인된 주제나 키워드'도 탐색의 단서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의 핵심인 출발점은 주제어 자체가 아니라 관련성이 확인된 문헌이다. 키워드 중심 탐색과 인용 문헌 중심의 연쇄 탐색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출발점이 '이미 찾은 적합 문헌'이고 이후 참고문헌·인용관계·저자명·서명 등을 따라 확장하면 Citation Pearl Growing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주제나 키워드에서 시작한다고만 하면 일반적인 주제 탐색에 가깝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Citation Pearl Growing은 '좋은 문헌 한 알에서 인용의 사슬을 키우는 탐색'이다.

NoteBase

25.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아시아의 문화적·과학적 자원을 대상으로 한 포털 사이트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협력으로 개발되어 운영
- 서지데이터는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로 제공

① ACE ② NEIS
③ NL ④ EADL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아시아 자료 포털의 운영 주체, 제공 대상, 데이터 제공 방식이라는 특징을 보고 해당 서비스의 약칭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ADL(East Asia Digital Library)은 동아시아의 문화·학술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게 한 디지털도서관 포털이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협력, 동아시아 자원, 링크드 데이터 방식의 서지데이터 제공이 핵심 키워드이다.
링크드 데이터는 웹에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표현하여 검색과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ACE X
- 틀린 표현은 'ACE'이다. ACE는 제시된 한·일 국립도서관 협력형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포털의 약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EADL이다.

② NEIS X
- 틀린 표현은 'NEIS'이다. NEIS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가리키므로 동아시아 문화·학술 자원 포털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EADL이다.

③ NL X
- 틀린 표현은 'NL'이다. NL은 제시된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포털의 정식 약칭이 아니며, 설명의 세 핵심 요소인 동아시아 자원·한일 국립도서관 협력·링크드 데이터 제공을 함께 지칭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EADL이다.

④ EADL O
- EADL은 East Asia Digital Library의 약칭이다. 동아시아 문화·학술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협력하며, 서지데이터를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한다는 설명이 모두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영문 약칭만 보고 비슷해 보이는 정보서비스를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링크드 데이터'라는 한 단서에만 매달리지 않고 '동아시아', '한국·일본 국립도서관 협력'까지 묶어야 EADL을 확정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 식별 문제에서는 대상 지역, 운영·협력 기관, 데이터 제공 기술을 차례로 확인한다. '동아시아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링크드 데이터'의 조합이면 EADL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ADL은 East Asia의 디지털도서관이다. 동아시아·한일 국립도서관·Linked Data를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NoteBase